

1989 11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교회학교 중등부)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아모스서

아모스서는 소선지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감동적입니다.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중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모스서를 귀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의 내용이 사회적인 부정을, 불의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부를 남용하고 가난한 자가 짓눌리고 억눌리고 눌린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지체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종교인들의 인습 특히 형식주의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며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무서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민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모스서가 많이 인용되고 있어서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식적으로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된 선지자로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첫 예언서입니다.

11월의 기도제목

1. 위임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2. 원로목사님의 전도여행과 건강을 위하여
3. 장로님과 교역자들의 참된 헌신을 위하여
4. 교회학교의 확장과 발전을 위하여
5. 제직들의 충성을 위하여
6.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7. 복지마을 건립과 선교센타 건립을 위하여

「신 한결레를 받고 의인을 팔며」(2 : 6)

하나님 떠난 자 경제적인 죄악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죄악입니다. 신 한결레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팝니다. '판다'는 말은 '배반한다'는 말입니다. 속이고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신 한결레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속이고 배신하고 이용해 먹고 등가죽을 베깁니다. 여기 신은 구두가 아니고 샌달도 아니고 사막지대에 끌고 다니는 짚신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 크고 작은 일에 조그만 경제적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기적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정당성 부인 이스라엘의 죄는 박해 받는 이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붙은 티끌을 탐내니 그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독한 착취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양심껏 일을 하면 병신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안합니다. 거짓말 시키면 한자리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 안하니 병신취급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는 부도덕의 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우상의 제단 앞에 수종드는 한 여인에게로 들어 갔으니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또 그들은 가난한 사람의 옷 전당잡은 것을 당일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출22 : 26, 27을 보면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은 옷을 돌려 주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낮에 입고 다니던 옷을 밤에는 이불로 덮고 잤습니다. 그러니 당일 돌려 받지 못하면 덮고 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법대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법을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기고 자기 법을 좋아합니다.

※※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 친구약을 깨뚫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이웃의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는 않더라도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도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할 일입니다.

기도 날마다 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희들을 용납하시고 법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게 하옵소서. 이종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히시옵소서.

2 (목) 특별한 사랑

찬송301 성경, 암 3 : 1 - 8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3 : 2)

점진적 심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 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인근의 이방나라들을 먼저 때리십니다. 이방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려고 간접적인 어려움을 사방발방에서 폭탄을 집어 던지듯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쯤 ‘아하, 나도 이 길을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겠구나’ 깨닫기를 원하시어 그 주변의 나라부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를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점진적인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계십니다.

세가지 진리 1 - 2 절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세가지 진리가 나타나는데 그 한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이렇게 구별하시었습니다. 두번째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선택과 구원, 이 두기둥이 여기에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선택된 백성입니다. 세번째 진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과 구원은 다른 민족에게도 있던 또 하나의 유래가 아니고 유일하고 독특한 은혜요 독특한 선택이요 독특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모든 족속 중에서 우리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내리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못깨달으면 친히 우리를 징계 하십니다.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자신을 정리합시다.

기도 우리를 직접 징계 하시기까지 미련하게 되게 마옵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모든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김창인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3 : 3)

옐로 카드 하나님은 9 가지 질문 속에 경고장을 발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반칙을 하면 처음엔 노랑 경고장이 들려집니다. 다시 반칙하면 빨간 카드가 들려지고 선수는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빨간카드 내놓고 나가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노랑카드를 먼저 제시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때는 가정의 어려운 풍랑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몸에 병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업의 파산으로 오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오기도 하고 교회적인 어려움으로 오기도 할 때에 우리는 그 노랑 경고장을 바로 볼줄 알아야 합니다. 이 노랑 카드를 받아 놓고도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농구선수가 4 반칙을 하고도 정신 못차리면 당하게 됩니다. 상대방 선수들이 5 반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반칙으로 유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미련한 인생들은 용감하게 마치 자기편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미련하게 싸우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벌의 근거 ‘두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면 오히려 대적자가 되니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서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사자가 앞에 먹을 것이 없으면 부르짖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멸망시킬 대상이 없다면 왜 위협하는 말을 하겠느냐. 새가 그물없이 잡히지 않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야 어찌 재앙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형벌을 예비 하셨습니다.

****** 하나님이 뜻을 보여 주셨는데도 그것을 멀리 떠나는 인생, 율법을 멀리 떠나는 인생, 참 회개가 없이는 재앙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노랑 경고장을 받았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빨강 경고장이 발한 뒤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항상 주위를 예리하게 살펴 돌이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4 (토) 사자 입의 귀조각같이

찬송188 성경, 암 3 : 9 - 12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3 : 12)

심판중의 긍휼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통고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재앙의 성격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인들과 지도자들이요 둘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셋째는 부자들입니다. 더한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게 될 때에 원수들까지도 그 소식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다리나 귀조각을 건져 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사상은 남은자 사상이라 합니다. 남은 그루터기가 다 불타버리고 다 죽어 버리고 다 뽑히고 다 찢리움을 받고 이제는 모든 것이 없어진 줄 알고 모든 것이 사라진 줄 알고 모든 진리가 다 끝나 버리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해 버린 줄만 알았더니 남은 조각이 있고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입으로부터 두 다리와 귀조각을 겨우 건져내는 것과 같이 아슬아슬하게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남은 자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악마를 통해서도 오는데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앗수르를 들어 쓰시기도 하고 중공의 모택동을 들어 교회를 치시기도 합니다. 사자가 어린 생명들을 처참하게 잡아먹듯이 심판이 무섭게 임하는데 그 가운데서 겨우 건져 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로서 살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 그 재앙을 피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소용이 없고 피할 곳은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피할 곳도 없는데 그래도 그대로 죽을 수는 없어서 무슨 수라도 써야 하는데 이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 이 지구위에 50억에 가까운 인구 중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특히 마치 사자의 입 속에 들어가 다 삼키운 바 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삼켜들어가는 두 다리, 귀조각을 겨우 잡아 꺼냈으니 이거야말로 놀라운 구원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날마다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옵소서.

「벤엘의 단들을 벌하여」(3 : 14)

무용한 방공호 인간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보려고 시도하는 몇가지 방법을 살펴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방공호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공호는 은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방공호는 물질이었습니다. 여로보암왕때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를 구가했습니다. 두꺼운 방벽, 물질의 담벼락을 해 놓으면 못막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돈가지고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적이 와도 돈주고 뺏쓰고 돈으로 방어벽을 해 버리면 문제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전벽이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적합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11절). '네가 아무리 굉장한 성을 쌓고 사면을 방어했다고 해도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지내던 그 모든 것들을 사면에서 공격해서 결국은 피할 길이 없다. 네가 쌓아놓은 방어벽은 너를 보호하기에는 안전벽이 될수 없다' 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안전지대는 거룩한 신전이나 제단이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있는 제단에 매달려 그곳에 숨으면 재앙을 면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든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었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더러웠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토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증되고 더러운 예배행위로는 방어할 수 없다. 도적질한 옷을 입고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리 소리를 치며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된 예배가 아니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가지는 안전한 집이었습니다. 문들을 잠그고 침대아래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십니다.

*** 물질적인 방어벽으로 우리를 감싸고 제단 숲속에 숨어서 종교적인 형틀속에 잠겨봐도 그곳이 우리가 숨을만한 방공호도 못되고 안락과 쾌락을 좇아 편히 눕자, 편히 자자, 편히 열락을 취하자 소리를 쳐봐도 그것이 우리를 평안의 벽으로 막아줄 수 없습니다.

기도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구원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어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제직들이 참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4 : 2)

하나님의 뜻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까라고 기도도 하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는 우리는 그 뜻을 그대로 수납할 수 없다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종종 달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모스 4, 5 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즐기고 좋게 보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 드고아의 목동 아모스는 불을 토해 내듯 하나님의 말씀을 토합니다. “보아라, 너희에게 예배가 없어서도 아니고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법도가 모자라서도 아니라 너희에게는 감사가 없고 진정한 복종이 없고 참된 충성이 없으니 심지어는 너희가 가져오는 모든 제물 까지도 가증스러운 것이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바산 암소들아’ 무서운 비유의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여 바산의 암소들과 같이 살만 찌서 하나님을 섬진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쾌락과 열락을 찾지 않았느냐 이제 때가 임하겠는데 갈고리로 끌어가고 낚시로 낚아가리라” 여기 갈고리라고 하는 말은 추수할 때 곡식을 굽어 모우는 도구를 말합니다. 낚시는 어부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낚는 어부된다는 말씀은 구약의 여러 곳을 참고해 보면 낚시질 하는 어부의 특성인 심판을 말합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니’ 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 철이 없다는 말은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심판의 몽둥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때입니다. 불의를 벗고 쾌락과 열락을 벗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와 진정한 복종과 참된 충성으로 헌신합시다.

기도 기구는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의 징조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찬양대원들이 성결한 입으로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너희는 벨엘에 가서 범죄하며」(4 : 4)

벨엘 아모스 선지자는 특히 벨엘, 길갈, 브엘세바 이 세 곳을 매우 중요한 곳으로 생각하면서 비유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1 장에 보면 아모스는 잔인한 수리아를 저주하고 수리아 백성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의 신들이나 에돔과 모압의 종교행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행위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의 종교는 남쪽으로는 벨엘로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단지방까지 신당을 지어 놓고 신당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4 장에서 신당예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특히 벨엘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벨엘은 아모스가 예언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들은 제각기 예배 형식이 있었고 예배의식이 있었고 역사적 배경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기는 했지만 각기 하나님을 대적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벨엘은 본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던 곳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곳이며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배신하고 하나님을 가장 괴롭히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벨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벨엘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벨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타락한 벨엘이요 더러워진 벨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 오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야 할 사람들이 마치 벨엘과 같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잘못된 종교, 불의한 신앙, 잘못된 걸어간 신앙적 습관을 우리는 따라가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오히려 대적하는 행위가 안되어야 합니다.

기도 잘못된 신앙적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말씀의 지식을 허락 하옵소서.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4:4)

길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길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도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된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들이 기념비를 세우기로 작정을 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 가운데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로 결정했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출애굽했던 그때를 감사하는 특별제사를 지내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들이 길갈에 머무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아침마다 떨어지던 만나가 중지되었고 가나안의 곡식과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길갈은 약속의 땅을 이미 얻었다고 하는 상징 도시였기 때문에 그 길갈에 가서는 가나안의 열매와 가나안의 곡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가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약속의 땅,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마음껏 받았던 땅, 하나님이 약속을 보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길갈은 종교의 실상이 없는 허수아비와도 같은 종교의 껍질만 남은 모습,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당을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화가 있는 곳입니다.

* * 겨울철에 방으로 뛰어들어가 방안에 있는 동화로를 온기가 있는줄 알고 꺼 안았더니 따뜻한 기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찬 기운을 주어서 섬짓하여 만졌던 손을 빨리 뗄수 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오히려 불꺼진 화로처럼 하나님의 백성노릇을 못할 때에 세상이 침을 뱉게 되고 오히려 낙심합니다.

기도 이름만 가진 종교의 껍질만 남은 허수아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학교가 금년내로 만명 되게 하옵소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어」(5 : 1)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유다에 있는 세번째 종교도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배신에 초점을 맞추다가 브엘세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도 퍼져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브엘세바까지 여행을 하며 거기에서 허황된 종교를 퍼뜨리고 거기서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위대한 족장들과 연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방문했을 때 이방사람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던 곳이었으며 이방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한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복받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브엘세바에 잠시 머무는 중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마치 장례식에 조사를 읽는 기분으로 ‘다 망하고 망하였도다’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고 그렇게 위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던 그 이스라엘이 약속을 받은 그 브엘세바에 와서 저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벰엘이 실패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던 약속의 땅 길갈과 브엘세바는 허무한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공허한 종교 신앙을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거짓말시킨 죄는 회개하면서 깨으론 죄는 회개치 않고 도적질한 죄는 회개하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는 살인죄인줄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공의는 주장할 줄 알면서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을 공의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허한 종교신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도 앞만 무성한 무화와 나무처럼 행위가 없고 말만 많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금년내로 2만 성도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5 : 21)

이름뿐인 신자 오늘날 명목상의 신자들이 영적인 쇠퇴를 계속해서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름만 가진 신자들의 특징은 두 세가지로 드러납니다. 먼저 이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 방법을 다해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만 가진 크리스찬이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옳게 살겠다 기대를 하면서 살 뿐이지 죽는 시간까지 그 사람은 옳은 일 한번 못해보고 옳은 판단을 따라 살아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죄중에 헤매이면서 그 죄가 자기 삶에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라고 핑계를 하면서 삽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죄에 물들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의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은 여호와와 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지으면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배신을 하면서 생각하기는 여호와와의 날이 도래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평과 진리를 추구했다라면 그날이 그들에게도 빛의 날이 됐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그러지를 못해서 그날이 어두움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19, 20 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명목뿐인 신자라면 이보다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는 것이 명목상의 신자입니다. 이들의 모든 종교행위는 거절됩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많은 것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죄를 멀리 합니다. 이것만이 명목상의 신자를 면하는 길입니다.

기도 결과 속이 다른 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충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서만수 선교사님과 윤태곤 선교사님을 붙드시사 온전히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5 : 24)

사랑 결핍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싫어버린바 된 것은 그들에게 비싼 예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의식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교회안에 의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물의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두가지 결핍증입니다. 사랑과 순종, 공의와 공법이 결핍되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렸고 자기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순종도 없고 오히려 태만과 사치와 불의로 가득 채워진 그들에게 올 것은 심판 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몸부림치면서 잃어버린 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부족하면, 공의가 부족하면, 순종이 부족하면 어떻게 병이 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와 날'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과 같은 날이면서 또 그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즐거운 날입니다. 기대할만한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 장 16~1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부활의 날과 연결시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호와와 날은 주로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날은 어두움의 날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날, 하나님이 없는 날, 생명이 없는 날 지옥입니다. 또한 여호와와 날은 분리되는 날입니다. 아주 고독한 날입니다. 외로워지는 날입니다. 빛 안에 있으면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으나 어두움에서는 웃음도 없고 반응도 없고 고독뿐입니다. 여호와와 날은 또한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 진리를 알아야 바로 살게 됩니다. 여호와와 날의 두려움을 아는 자는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날을 준비합니다. 자신을 위하여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화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6:1)

금물 하나님의 백성이 안일해서는 안될 안일이 지금 시온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있어서는 안될 안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쉬면서 안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마11:28,29). 계시록은 수고가 끝이 나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6장 초반부에서 말하는 안일은 하나님의 집에서 있어서는 안될 안일을 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믿는 안일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시민이니까 안전하다'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적입니다. 형식과 제도가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날을 빙자하여 안일을 찾고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다 구원받고 승리자가 되니 문제없다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게으른 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열락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임할 화를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중에 안일을 취하는 것과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안일을 취한다는 말은 전혀 그 뜻이 다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 '뚱뚱보 양'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 살이 쪼는지 분석을 해보니 고단위 영양가를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먹는데 고단위로 먹었으니 살이 찌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고 비대해진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영양을 섭취한 만큼 거기에 대응하는 활동이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가 없고 거기에 확실하게 같이 나와야 하는 움직임이 없을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쉬다가 일어나 일할 때입니다. 밭에 늘어진 곡식들이 추수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태하고 게으른 자를 죄없다 아니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고 낫을 들고 일어납시다.

기도 자칫하면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무기력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칠레의 유재일 선교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6 : 7)

무책임 열락만이 아니라 또한가져 화를 당할 조건은 조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고 또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조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나 혼자만 평안을 구가하는 사람,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으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순간에 화를 당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요청, 요구, 필요에 전혀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야 밥을 굶든지 죽게 됐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상관을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건강한 사회이고 든든한 사회이고 책임지는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훌륭한 교회입니다. 온 가족이 책임을 지는 가정은 훌륭한 가정입니다.

게으름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기지개 켜는 것은 물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게으른 것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거짓말 도적질 간음 다 안해도 게으른 죄, 부지런하지 아니한 죄는 악한 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위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 손가락이 아픈줄 아는 문둥이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고름이 나오는데 아픈줄 모르면 아직도 의사가 만져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기를 찌르고 칼로 찌도 통증이 없으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민감하게 변명하지 말고 영적인 상태의 위기를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바로 서게 되면 화가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빠야 합니다. 성경 읽기에, 봉사하기에, 전도하기에 바빠야 합니다.

※※ 직분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다면 위기입니다. 코끼리가 집으로 들어올 때 한꺼번에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코가 먼저 들어오고 앞발이 들어옵니다. 슬그머니 들어오는 죄를 몰아내어야 합니다.

기도 기회 주셨을 때 놓치는 자가 아니라 선용하여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옵소서. 독일의 육호기 선교사님을 통하여 독일 한인 교회가 튼튼히 서게 하옵소서.

14 (화) 돌이키시는 하나님

찬송337 성경.암 7 : 1 - 3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7 : 1)

황충 재앙 본문의 세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와 이 민족 사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찾아 봅니다. 첫째 재앙은 황충의 재앙입니다. '황충'이 무엇인지 생물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다만 메뚜기 종류라고만 합니다. 지금은 일차적인 추수가 끝난 때입니다. 첫곡식, 첫 열매는 세금으로 바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추수가 일단 끝났는데 거기서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셨다니 이것이 간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다시 싹이 나와 기대를 하는 마당에 황충이 나타나 이삭을 모조리 갉아먹으니 견딜 수 없습니다. 겨울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했는데 더이상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양식이 모조리 상하거나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와도 같습니다. 황충재앙은 파괴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작은 생물에 의해서 아주 커다란 손해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작은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 지극히 보잘 것 없는 것들,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곤고함이 옵니다. 그 황충은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황충을 보내서 심판의 칼을 막 내미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이루지 아니하리라' (3 절).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데 징벌하시다가 뜻을 돌이키시다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생각하기 쉬우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떠났을 때 심판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속에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 회개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워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감입니다. 그러나 바로 살아 보려고 애를 썼지만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은 용서를 구하면 일곱 번씩 일흔번 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마음을 감략하게 하여 고의적으로 범죄치 말게 하시고 연약하여 넘어진 것 용서하옵소서. 애굽의 미준교 선교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입히시옵소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7 : 7)

기하학자 다음은 불의 재앙입니다.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태워버리고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림줄 재앙입니다. 다림줄은 줄자로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재어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확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마구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측량사가 자로 재는 것처럼 정확히 자로 재셔서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자로 정확하게 재셔서 기준치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므로 우리를 결코 억울하게 안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정확하신 기하학자이십니다. 핑계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봉사한 일, 보이지 않게 한 모든 선한 일을 다 갚아 주십니다. 무명으로 헌금하시는 분, 이분이 믿음의 성숙한 분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심판의 대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은 변두리가 아니라 핵심인 산당과 왕궁을 심판하십니다. 종교인들,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 앞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 예언자도 결코 냉혈동물이 아닐 것입니다. 감정도 있고 깊은 애정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예언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이 올 것이라는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메뚜기와 같은 보잘것 없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나옵니다. 생활이 자꾸 허물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심판의 자막대기가 우리를 재게 될 것이니 빨리 돌이켜야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은 적당히 열버무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물쩍 넘어 가려다가는 큰 일을 당합니다. 회개를 하되 철저히 하고 핑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막대기가 이를 증거하고 나올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 모든 일에 맺고 끊음에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서울소재 인도의 엘리야 겔간 선교사님을 통하여 어두움에 빛을 발하옵소서.

「궁핍한 자를 삼키며」(8 : 4)

은혜의 남용 아모스는 두가지 무서운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와 부패한 정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집약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죄인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서도 성전에 와서 찾은 것은 겨우 땅의 열매를 통한 세속적인 번영을 찾았고 자기의 창고가 가득차고 자기의 줍들이 풍부해지는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응답은 보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힘입고 물질적인 것으로 대응하는 정도의 천박한 신앙을 가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세상에서 만질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을 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 덤으로 주신 것들만 감사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종교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사마니즘적이 되고 무당종교처럼 되어 버린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영적인 은혜와 동시에 기도 응답속에서 베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기도의 응답이라기 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의식과 가전적인 행사에서만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 사람에게 기회는 한번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에 그 기회를 남용하는 사람이 있고 오용하는 사람이 있고 선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기회를 선용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김주경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박행렬선교사님 가정을 불드시사 서사모아에서 복음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밭을 내게 할꼬」(8 : 5)

공의 상실 이스라엘의 또 한가지의 부패는 정치적인 부패입니다. 여로보암 집의 타락상입니다. 여로보암왕의 정치적인 죄, 사회적인 죄는 한마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벤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예배를 드렸으니 이것은 율법에 대한 반역이요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자의 결과는 가정파괴와 개인 멸망과 국가분단으로 나타납니다(7 : 17). 부패한 신앙, 부패한 정치, 부패한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댓가는 멸망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무르익은 것을 여름철의 실과 한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잘익은 과일'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광주리'는 국가를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 지금 백성과 국가에 가까워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공평과 공의를 호소하셨지만 그들은 공의를 행하기 보다는 가난한 자를 확대했고 시장에서 상행위가 공평하지 못했으며 저울추를 속였습니다. 법정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도 법이 바르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야 밭을 팔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 것입니다.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 것은 잘한 것이지만 궁핍한 자를 삼키면서 망하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인줄은 몰랐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 한켄레를 던져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척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를 잘하겠다고 하면서 둘은 저버리는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고 죄입니다. 저울추를 속이고 법정에서 법이 시행이 안되고 사회에 공의가 다 상실된 것입니다.

** 하나님께 대한 신앙 행위는 잘 하고 있지만 이웃에 대한 의무를 이행치 않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와 불화한 것 있으면 화해하고자 예배하러 오라고 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형성에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 십일조를 잘 바치고 성수주일도 잘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원하는 자들에게 인색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일본의 유병세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8 : 11)

영적 기근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세가지로 떨어집니다.

죽음과 멸망과 고통이 온 땅에 임하는데 절기에 즐거워 할 것이 아니라 애곡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를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기갈은 당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을 당합니다. 이것이 곧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이것이 무서운 저주입니다. 말씀의 기갈을 주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폴란드 혹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오신 목사나 사제를 몇분 만나도 보고 그 분들의 간증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중 루마니아에서 온 분의 간증 가운데 성경을 구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울어도 구할 길이 없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는데 하늘에서 낙하산 같은 것이 떨어져서 살펴보니 성경이었습니다. 공산권 선교하는 사람들이 풍선에 성경을 달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다섯시간을 울었습니다. 지금 공산국가에 말씀의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길이 없고 배울 길이 없습니다. 중공에 가서 성경을 라디오를 통해서 베끼는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 성경이 옆에 있어도 먹지를 못하는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가, 복을 받고 있나, 은혜를 힘입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나를 재는 방법중의 하나는 성경말씀을 얼마나 사고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말라기 이후 세레 요한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 말씀이 끊어지고 묵시가 없는 백성은 어두움과 혼돈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속에 말씀이 있고 빛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있습니까. 기도를 할려도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보다 더 큰 기근은 없습니다.**

기도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세계도처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불드옵소서.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9 : 1)

단곁에 서신 하나님 본문에는 다섯가지 재앙중에 마지막 재앙인 하나님께서 성전 단곁에 서 계신 모습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다섯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판은 백성들이 평강과 축복을 기대하는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9 : 1).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드렸다고 하지만 실상은 재물만 살찌우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았지 하나님은 무시하고 멸시한 연고로 하나님이 높아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축복을 기대한 그 현장에서부터 심판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부숴버리는 일로 심판하십니다(1 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종교인들의 생활이 오죽했으면 성전의 문지방을 쳐서 온기둥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살육하겠다고 하십니다. 기대하고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천사람, 만사람 중의 하나로 뽑으시고 부르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원하고 계셨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이기 보다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슬픈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린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심판하십니다.

*** * 교회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간과치 않습니다. 입술의 찬양 뿐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제도 없고 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교회에 소속된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복지마을 건설과 세계선교센터 건립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9 : 4)

배신의 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음부에 가도 거기 있고 하늘에 가도 거기 있고 갈멜산 꼭대기로 도망쳐도 거기 있고 바다 밑으로 도망쳐도 거기 있고 포로가 되어 남의 나라 땅으로 도망을 가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파산선고를 당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때로는 타국으로 도망가면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바다 밑으로 떨어져 자살을 하면 피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요 우주를 붙들고 섭리하시는 섭리자시요 능력이 무한하신 웅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간들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손바닥의 손금을 보듯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거짓말 시킬 수 없습니다. 악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른 백성의 죄보다 더욱 악한 이유는 배신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는데 우상을 따라가며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이방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신의 죄를 범해서는 안되며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를 높여야 합니다. 반역자의 결국은 심판과 저주뿐입니다(10절). 칼로 죽이겠다는 말씀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거짓말과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므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의 사랑 또한 많이 요구하십니다. 무엇보다 배신의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 불의한 요소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고 의를 추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9 : 11)

메시아의 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약속이 나옵니다(11절). 그날은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때가 찬날이요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 영혼의 주장자가 되십니다. 천국이 임했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고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소산물을 풍족하게 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12절). 소산의 회복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보호지대를 주십니다. 우리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소산물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도 안전하게 되고 우리의 무너진 천막이 일으킴을 받게 되고 열려진 틈이 막히게 되고 퇴락한 것이 일으켜지게 됩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호의 품안에 나를 넣으면 다시는 바람이 불어서 풍랑에 뿔리지 않을 것이고 험한 시험물 속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나혼자 외롭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의 품안에서 거하게 될 터이니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메시아가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요 심판 중에도 택하신 백성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터진 것의 회복이야 말로 상처나고 할퀴어지고 실족했던 우리들에게 한없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이라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참되게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 낙심된 자리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읍시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매달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회복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항상 위촉되기 쉬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새힘을 주옵소서. 갇힌 자를 돌아보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잠언’이란 말은 격언과 같은 표현이나 격언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이고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잠언의 특징은 간단 명료한 것이다. 지혜있는 사람, 하나님의 잠언을 아는 사람은 간단 명료하게 사고도 하고 표현도 하고 일을 처리하기도 한다.

잠언의 기록자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여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본문에 나타난 대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본다.

‘솔로몬’의 뜻은 화평하다, 평강하다는 뜻으로 솔로몬은 그의 이름과 같이 매우 조용히 산 사람이다. 평안을 구가하며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다.

다윗은 그 성격대로 그의 생애가 그러한 것처럼 그가 써 놓은 글은 참으로 전투적이고 그 고난에서 헤엄쳐 나오는 간절함이 있고 고통스러운 면이 그의 시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잠언에는 평안할 때 준비해야 되는, 평화시에 배워야 되고 평화시에 단련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솔로몬은 왕중의 왕 다윗의 아들로 명예를 가진 사람으로 자신이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왕은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무지한 자에게는 훈계를 주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선생이 되어 주는 한 나라의 지도자이다.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의 훈계를 받도록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2-4).

잠언을 배우게 되면 지혜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게 되며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게 된다(5-6).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1 : 2)

지혜, 명철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흔히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는데 지식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지혜 없이 지식만 사용하면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롭게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갖게도 합니다. 또한 지식없이 지혜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고 훈계를 알게하기 위함이며 또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명철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젊다는 말은 아직 경험이 없다는 말이요 아직 받을 바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잠언을 배우게 되면 지혜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집니다.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말씀을 거절하지만 지혜있는 자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 강한 자는 강장제를 먹는것 같이 힘을 더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 분별력이 안 생길 때는 교회에다 말하되 특히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장로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므로 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이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해석자가 됩니다. 해석을 못하면 잠언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깨지지 않은 호도는 맛을 볼 수 없듯 이 말씀을 해석할 줄 모르면 깨지지 않은 호도와 같습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고전 2 : 13). 하나님의 말씀은 국문학자나 시인이나 영문학자가 해석을 못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은 자는 상담자로서 모략을 얻게 됩니다.

******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 하십니까 지혜있는 자입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담역을 할수가 있습니다.

기도 늘 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충현의 가족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1 : 7)

하나님의 임재 솔로몬은 특별히 미련한 사람과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가르치려고 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4 절). 미련한 사람은 슬기롭게 할 것이고 젊은 사람에게는 지식과 근신하는 마음을 더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다음 두가지 사항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존경심, 예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가지고 때리시거나 환난을 베풀 때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말합니다. 경외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때에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편만하게 임재하는 중에 특별히 나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세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비로소 지식이 옵니다. 그 지식이 값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고 숫자를 나열하기만 하는 사람은 수학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근본'은 또한 기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잠언의 표어입니다. 잠언전체의 주제요 표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 하나님을 경외해야 필요한 모든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지식을 얻었어도 그것은 오히려 죽이는 지식입니다. 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전심 전력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기도 우리의 마음을 통촉하시는 주시여, 경외하는 마음을 부으시사 온전한 지식을 갖게 하옵소서. 충현의 온 성도들은 전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1 : 8)

훈계를 들으라 미련한 사람이 슬기롭게 되고 젊은 사람이 지식과 근신하는 마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론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남을 높여야 되니까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은 지혜자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연세가 높은 분이 지혜자입니다. 이런 분은 국민학교를 못다녔어도 지혜는 젊은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꼭 우리를 낳은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높은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신앙연조가 높기 때문에 지혜가 많은 까닭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것입니다. 연세가 높고 부모가 된 분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율법만 강조하지 말고 훈계해야 합니다. 훈계한다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일지라도 자녀에게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억울 하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잘 한다해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자녀교육인데 교육이란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로 교육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마음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부모없이 자란 자식과 부모 앞에서 자란 자식의 차이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입니다. 가정이란 것은 잔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잔소리를 자꾸 들어가면서 다듬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잔소리 까닭에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가정 교육 같이 그렇게 잔소리가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들어가면서 몸가짐이 반듯해지고 생각이 곧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자라납니다.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훈계를 받으면서 법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머리의 아름다운 관, 목의 금사슬은 명예를 말합니다. 영광입니다.

****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어른을 공경할 뿐 아니라 존경을 받을만한 어른이 다 됩시다.**

25 (토) 악한 자의 유혹

찬송395 성경, 잠 1 : 10-19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좇지 말라」(1 : 10)

함정 조심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의 기회를 발견하고 지혜의 길에 머물고 지혜의 길에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나쁜 친구, 불신앙의 친구, 하나님을 대적하는 친구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악한 자는 거룩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불의한 친구, 잘못된 친구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청년의 특징이 여러가지 있는 중에 개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방적입니다. 청년은 폐쇄적이지 아니며 응답적이고 신뢰적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친구들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듭니다. 우정을 중요시하고 의리를 중요시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인간분석을 보면 소년시절까지만 해도 자기 중심적이다가 다음에 우정을 중요시하다가 결국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나 불신자와의 교제는 매우조심을 해야 됩니다. 죄의 간교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사탄과 같이 매우 간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공평한 척 합니다. 공평을 약속까지 합니다. 사욕이 없는 것같이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제비를 뽑자’ 공평입니다. ‘전대 하나만 두자’ 청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부 속이는 것입니다.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덤이 죽음을 통채로 삼키고도 아무 사람에게 원망도 안받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은폐를 잘 합니다. 악한 모양이 나타나면 따라갈 자가 없지만 공평한 척하고 사심없는 척하니 존경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또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꼬이지만 장차 올 수치를 모릅니다.

**** 악한 자를 따라가고 거룩하지 못한자의 유혹, 죄의 간교의 유혹에 넘어지면 결국 불행한 일이 오게 됩니다. 교회안에도 거짓말이 꼭 차 있고 불의가 꼭 차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인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불의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특히 타인을 유혹하는 모든 요소를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기도 내가 남에게 유혹을 당하지도 말게 하시고 내가 남을 유혹하는 일은 더더욱 없게 하옵소서.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불드시웁소서.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 : 15)

탐욕 친구의 유혹 뿐 아니라 우리의 본능적인 강력한 욕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욕구는 인간의 잔인성에서부터 나오는 폭력입니다. 폭력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거부합니다. 폭력에는 주먹만 쓰는 폭력뿐 아니라 말의 폭력도 있습니다. 칼로 총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도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뒤에서 헐뜯고 앞에서 저주하고 거짓말로 넘어뜨리고 갇은 모략과 중상과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활을 쏘아도 상관없는 자리인줄 알면서 남의 마음에 화살을 쏘아버리니 그 화살이 박힌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모르는 사이에 남의 인격을 얼마나 모독하는지 이것이 폭력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부분입니다. 빼앗아 채우는 탐욕입니다. '욕심'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 허락 받지 아니한 것을 자꾸 가지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니 세상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 악한 것이 잔인과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인격을 파탄시키고 삶을 파탄시킵니다. 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오산을 가져오고 자멸케 합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귀한 것을 다 빼앗기며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빼앗깁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익이 와도 끊어버리고 도움이 되어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되 단번에 끊어버려야 합니다. 주저하면 실패밖에 올 것이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다니지 말고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 * 주위에 악한 친구가 있습니까.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끊어버립시다. 남의 헐뜯음을 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와 오래 사귀면 나도 어느새 헐뜯하기를 시작합니다. 총으로 죽이는 살인에 못지 않는 것이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좋은 지위를 악을 행하는 자리로 오인해서는 안됩니다. 분수를 지키고 욕심을 억제하지 않고는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시다.

기도 우리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분수를 지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분복대로 정직하게 기르는 복도 주옵소서.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1 : 22)

지혜의 부르심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청하지 아니할 때에 생기는 위험이 잘못된 친구를 따라가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뒤에서만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돌아오라고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갑자기 들려 주시고 목소리로 부르고 손으로 흔들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불러 주십니다. '지혜'는 인격화 시킨 지혜, 의인화 시킨 지혜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지혜들이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가지 지혜를 주시어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같이 천하고 멸망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 오성을 지혜로 사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간 오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능이요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잘못 적용이 되어서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성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단어와 뜻이 비슷합니다. 이성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은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성작용은 말씀을 듣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이성작용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시고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국민이 뽑은 정부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시므로 인해서 지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잘 그리는 재능을 위조지폐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 이성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으로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출현의 가족이 이성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1 : 20)

공개적 부름 지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요 그리스도 자신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시는데 길거리에서 부른다 했으니 공공연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부르십니다. 몰래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부르십니다. 애처롭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내 아들이 악한 길을 좇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상은 위대하고 똑똑하고 남보다 앞서가고 가진 것이 많고 훌륭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로 만드십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혜의 공급자는 성령님이시고 지혜의 수단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거절하고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결과는 재앙이 임하고 두려움이 옵니다. 교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재앙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날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यो 이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는安然히 거하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합니다.

** 은혜와 평강과 긍휼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의 목적 안에 살면 날마다 평강합니다. 주안에서 지혜를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미련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지혜롭게 하셨으니 이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사용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날마다 지혜를 더해 갑시다.

기도 우둔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이 지혜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29 (수) 무지한 노새

찬송235 성경, 잠 2 : 1 - 9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2 : 2)

하나님 말씀 경청 읊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혜는 어디를 가야 얻을 수 있으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고 또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다스리고 운영하고 사용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기만 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1 - 2). 지혜와 명철의 샘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와 명철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지혜는 우리가 소유할 필요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요즈음 책방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인데 특히 셀러리맨들이 성공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책을 탐독한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자기의 피를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기지와 재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오히려 자기 피에 자기가 넘어가게 합니다. 결국 지혜의 판가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둘째 방법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라’ 여기 지식은 의인화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부를 뿐 아니라 명철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약 1 : 15).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달라고 우리는 어린애기처럼 보아야 합니다. 어린 아기는 그저 울면 됩니다. 우리도 소리를 높여 울면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되는데 은을 얻고 보배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인지 모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도 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무지한 노새와 같이 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인내하고 정조를 지키고 위험을 무릅쓰고 부지런하면 얻게 됩니다.

기도 말씀을 거역하는 무지한 노새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충현의 모든 성도는 순종만 알게 하옵소서.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2 : 8)

공평과 정직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며 고난을 감수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여러가지 유익이 옵니다. 첫째는 지혜의 근원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와 교제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대인 관계에서 처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방법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불의를 행하고 불의한 길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상실한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손해가 나도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평입니다. 지도자가 평형을 잃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나라와 사회와 단체가 흔들립니다. 공평한 눈과 공평한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도자에게 중요한 다른 한가지는 정직입니다. 부정직하게 속임수를 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못됩니다. 공의는 정의의 원리이고 공평은 자비의 원리이고 정직은 공평거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성공할 것입니다. 자기 의무를 아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지식의 소유자인데 이를 위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삶의 원리로, 대인 관계의 처신법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되는 근거는 하나님은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영감된 말씀이고 영감되었다는 말은 벨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벨어진 말씀이니까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8절). '보존'이라는 말은 은혜가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 말씀의 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보존할 뿐아니라 삶의 만족이 오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고 큰 것을 받고도 감사하며 매사에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매사에 불만족 하십니까.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해봅시다. 참 만족이 올 것입니다. 은혜를 보존하는 방법은 말씀의 지혜를 받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날마다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충현의 온 가족이 날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만나 • 1989년 11 월호 • 등록번호 / 제9 - 110호 (1977. 10. 21)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충청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전화 562 - 4181 - 3)